

2014. 10.

금산인삼축제 추진주체 법인화에 대한 당위성 확보 방안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 목 차 】

1. 인삼축제 개최현황과 발전과제

- ① 인삼축제의 태동 1
- ② 인삼축제의 발전과정 2
- ③ 인삼축제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발전과제 19

2. 법인에 대한 정의와 비교 검토

- ① 사단법인의 정의와 특성 21
- ② 재단법인의 정의와 특성 22
- ③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비교 24

3. 타 축제의 법인화 사례

- ① 보령 머드축제 사례(재단법인) 30
- ② 문경오미자 축제 사례(재단법인) 33
- ③ 춘천마임 축제 사례(사단법인) 34

4. 금산인삼축제 추진주체 법인화 방안

- ① 금산인삼축제의 법인 설립 대안 검토 38
- ② 금산인삼축제 법인 설립 제안 40
- ③ 금산인삼축제 추진주체 법인화에 대한 당위성 42
- ④ 지역상인의 법인참여 운영 확대방안 45

1.

인삼축제 개최현황과 발전과제

1 인삼축제의 태동

①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

금산인삼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백제의 강처사가 산신령의 계시로 삼산을 발견하고 그 씨앗으로 재배를 시작한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오랜 인삼의 전통을 갖고 있는 금산은 지금도 많은 인삼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통에 있어서도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금산군은 출경작(외지에 나가서 경작)까지를 포함하여 4,235호의 농가가 1,900ha면적에서 연간 30,567톤의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 또한 금산에는 모두 1,320여 개의 인삼 약초 제조·판매업소가 있고,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 전문시장이 형성되어 이곳에서 연간 약 7,846억원 상당의 인삼약초를 거래하면서 전국 인삼유통의 80%를 담당하고 있다(금산군, 2007). 또한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약 65%가 인삼약초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인삼약초는 금산의 절대적인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금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이다.

② 금산인삼축제의 생성 배경

금산군에서는 해방 이후 매년 10월 1일부터 이틀간 군민의 날 행사로 읍면대항 체육대회 및 농악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81년에 당시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협의하여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인삼제로 전환하여 금산인삼을 널리 선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산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삼장제를 바탕으로 축제를 기획하여 1981년 10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최초의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하였다. 삼장제는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돋아 오를 때 이 고장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였다.

당시 인삼제를 구상하게 된 보다 실질적인 배경에는 인삼소비를 촉진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맞물려 있었다. 국내적으로 인삼의 생산량은 대포 증가하였으나 그에 걸맞는 소비 증가가 뒤따르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였다. 그 수단 중 하나로 구성된 것이 인삼제였다. 인삼제가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의 이미지 확산과 인삼의 성가 홍보에 좋은 역할을 하면서 판매량의 증가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② 금산인삼축제의 발전과정

① 지역화합형 축제로서의 금산인삼제(1981 - 1995)

최초의 인삼제는 구 금산경찰서 앞 네거리에서 교통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삼장제를 복원한 제전행사, 개막식을 비롯한 의전행사, 농악경연대회·씨름·웃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 그리고 인삼아가씨선발대회 등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지역화합형 프로그램으로 인삼약초의 판매증대와 같은 산업적 효과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컸다. 그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축제의 장소를 학교 운동장, 공설운동장 등으로 옮기고 프로그램도 약간씩의 변화를 주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역화합형 축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15회까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금산에서 인삼을 최초로 재배하였다는 개삼터를 찾아내 고증을 받고 개삼각과 강처사 고택을 건립함으로써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임을 입증함과 아울러 인삼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금산농악과 충각대방놀이 등 금산의 전통민속을 발굴하여 인삼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비록 인삼제가 초기에는 외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삼약초산업 발전 효과를 크게 내지는 못하였지만 타 지역보다 훨씬 앞서서 군민의 날 행사를 지역 특산물축제로 전환하고 인삼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산인삼축제가 오늘날 전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산업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제1회 1981년 : 인삼제의 시작(10. 1 - 10. 2)

문화원 이사를 중심으로 한 금산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처음으로 구 금산경찰서 앞 네거리에서 교통을 통제된 상태에서 축제를 시작하였으며, 인삼을 금산에서 처음 재배하였다는 개삼터를 발견, 고증을 받음으로써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임을 전설이 아닌 사실로 입증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삼장제를 복원한 제전행사, 개막식을 비롯한 의전행사, 농악경연대회·씨름·웃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 그리고 인삼아가씨선발대회 등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지역화합형 프로그램으로 인삼약초의 판매증대와 같은 산업적 효과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컸다.

■ 제2회 1982년 : 인삼제의 전국 홍보(10. 6 - 10. 7)

인삼선양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민속행사와 문화행사로 생산과 판매가 직결되는 생산적인 행사로서 도단위 지방문화행사로써 부각되었으며, 인삼을 건강식품으로 개

발 전국에 홍보하여 <한국의 새맛>으로서 인삼의 또 다른 진면목을 과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화합형 축제이면서도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인삼하면 금산이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첫 번째 행사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삼제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였고 단지 금산 인삼에 대한 인식만을 전국에 알리기 시작한 해였다.

■ 제3회 1983년 : 인삼제의 기틀 마련(10. 2 - 10. 4)

인삼제를 통한 지역화합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증대 등을 위하여 지역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인삼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 행사로 금산 인삼이 ‘인삼중의 인삼’으로서 성과를 높이고, 인삼의 표상이 될 인삼탐과 개삼각 그리고 송의정을 건립·준공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인삼의 전통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인삼의 고향 금산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과 지역전통성을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제4회 1984년 : 인삼제를 통한 주민화합축제(10. 6 - 10. 7)

인삼제를 통한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 행사로서 특히 지역이 인삼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행사인 제례행사를 개삼각에서 강신제, 본제, 사신례까지 올려졌고, 행사 종목에는 새로이 지역주민 화합체육대회와 문화행사에 주부백일장이 추가되어 거행되었다.

이로써 인삼제가 인삼재배자와 판매자를 위한 행사가 아닌 금산지역민 전체를 위한 축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인삼제를 통한 금산 지역민 화합의 자리가 이루어졌다.

■ 제5회 1985년 : 인삼제의 조직틀 마련(10. 7 - 10. 8)

금산 인삼제가 제천행사의 성격 위주의 행사에서 지역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산 인삼제가 태동 당시 이름 지어졌던 인삼제선양위원회 조례를 금산인삼선양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주민부담에 의존했던 행사 일부가 생략되고 인삼제의 골격적인 행사만 가졌다.

■ 제6회 1986년 : 인삼제의 확대(9. 26 - 9. 27)

금산 인삼제가 기존 민속행사 위주의 행사에서 인삼을 주제로 한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로 인삼경진대회, 인삼장사씨름대회 등 인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농악경연대회, 불꽃놀이 등의 종목을 추가 확대하여 군민화합잔치와 풍년 축하잔치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산 인삼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된 주제지향형 축제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제7회 1987년 : 인삼제의 지역주민 참여 확대(9. 7 - 9. 13)

제7회 금산 인삼제의 경우 지역화합형 축제로서 보다 많은 군민 참여유도를 위하여 부녀자 널뛰기, 부녀자 그네대회, 노인 윷놀이가 추가되었으며, 홍보에 있어 TV 프로그램 ‘차인태의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에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송되어 TV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킨 첫 해이다.

제7회 금산 인삼제를 통해 TV를 통한 홍보효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금산 인삼을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 제8회 1988년 : 인삼제의 언론매체를 통한 본격 홍보(10.11 - 10.12)

제8회 금산 인삼제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둔 행사였으며, 지역문화의 개발측면에서도 사라져 가는 민속행사(충각대방놀이) 발굴을 통해 전통민속 공연을 시연하는 등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발하는 계기가 된 행사였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수단으로 대전일보, 중도일보, KBS, MBC 양대 TV 등 각 언론기관을 통해 행사를 전국에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금산 인삼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제9회 1989년 : 인삼제의 산업축제로의 발돋움(10. 6 - 10. 7)

제9회 금산 인삼제에서는 기존 주민화합형 소비형 축제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형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행사로서 종목 확대 및 인삼소비 창출에 관심을 기울여 인삼 전시판매 코너 운영 등을 통해 다채롭고 풍성하게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출향 인사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와 삼업관련 업체의 적극적 성원 아래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금산 인삼제 개최를 통해 금산 인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인삼산업체에서 인식한 것으로 산업축제로서의 발전 잠재성을 모두가 인식한 행사였다.

■ 제10회 1990년 : 인삼제의 면모 부각(10.11 - 10.12)

제10회 인삼제에서는 금산 인삼의 가치와 전통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인삼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개삼각 주변을 확장하고 강처사 고택을 신축하여 고려 인삼의 종주지 면모를 한층 부각하였으며, 인삼제전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인삼식품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건강식품으로서의 인삼 선양에 큰 몫을 하였다.

이를 통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강식품으로

서 금산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자리잡는 기틀이 되었다.

■ 제11회 1991년 : 인삼제를 통한 금산인삼 우수성 홍보(10. 1 - 10. 2)

제11회 인삼제의 경우 인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국 인삼의 밀반입에 대응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내외에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산 인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인삼 관련 단체의 자율 참여의식 제고를 통해 인삼제의 민간 주도화 역량배양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금산 인삼제가 산업형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행사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삼제 프로그램인 ‘물폐기농요’가 제32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하여 종합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인삼제 프로그램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삼제를 통해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임을 인식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 제12회 1992년 : 인삼제의 문화행사로 승화(9. 21 - 9. 23)

제12회 금산 인삼제를 통해 인삼의 종주지 부각과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칠백의사의 숭고한 정신 계승과 물폐기농요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 전승보존하게 되었고 12년 연속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문화행사로 승화시켰다.

■ 제13회 1993년 : 인삼제의 지역단체 참여 확대(9. 21- 9. 23)

금산의 전통민속과 문화적 특성을 부각하고 새롭게 발굴한 농바우끄시기를 처음 시연하여 전통 민속행사 계승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각급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인삼업계의 참여속에 1기관 1종목 추진의 성과가 돋보였던 행사이다.

■ 제14회 1994년 : 인삼제의 세계화 추진(9. 21 - 9. 23)

'95 WTO를 앞두고 인삼제도 개선의 의지를 나타낸 행사로서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짐의 마당으로 ‘가장 금산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신념으로 금산 인삼의 세계화에 주력하였던 행사이다.

■ 제15회 1995년 : 인삼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9.21 - 9. 23)

수해와 콜레라로 인한 피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면 된다’는 의지와 지방자치시대의 무한경쟁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군민의 대화합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 개최되었다.

②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금산인삼축제(1996 - 2005)

■ 제16회 1996년 : 문화관광축제로 전환(9. 19 - 9. 24)

문화관광부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의 축제 육성시책을 전개하였는데 금산인삼축제는 1996년도에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전국의 8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속에서 축제전공 대학교수를 비롯한 이벤트 전문가들이 축제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인삼축제는 주민화합형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인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삼약초 구매효과를 높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해 축제에서는 인삼약초산업 진흥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축제기간을 5일간으로 늘리고 행사장도 인삼약초시장 근처의 네거리 광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인삼깎기, 인삼주 담아가기 등 외지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문화관광축제로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변화된 축제를 통하여 인삼약초 판매량이 증대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하여 금산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축제발전에 관하여 지역차원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 해 축제를 계기로 금산에서는 인삼축제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자문과 지도를 담당하고, 축제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축제에 반영하였으며, 인삼약초업계 종사자들은 품질 좋은 인삼제품의 생산 및 공정한 상거래 풍토 조성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단체는 교통·위생·질서·자원봉사 대책을 분담하는 시스템이었다.

이후 금산인삼축제는 변신을 거듭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지금까지 원활하게 가동되는 유기적인 지역협력시스템의 힘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 제17회 1997년 :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9. 5 - 9. 9)

1997년 제17회 금산인삼축제는 8대 문화관광축제로 이어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아 "신비의 건강여행"을 주제로 하고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동의보감 한방무료진료 코너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금산인삼을 밭에서 직접 캐가도록 하는 '인삼캐기여행', 관람객들에게 진료를 해주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주어 인근의 인삼약초시장에서 필요한 약재를 사가도록 하는 '한방진료코너' 등이 도입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축제의 성공에 있어 홍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전까지의 금산인삼축제는 전국적인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였는데 1997년 축제를 기점으로 전국 단위

의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국의 주요 일간지에 홍보 기사를 게재하였고 공직자들이 주축이 되어 대전 등 인접 지역의 역과 터미널 등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축제를 알렸다.

아울러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농업경영인대회, 부녀회 행사, 전국체전 등 도 단위나 전국단위의 각종 행사에 참가 시 현지에서 인삼축제를 홍보하는 연을 날리고 팜플렛을 나누어 주면서 열성적으로 축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축제담당 공무원들이나 축제홍보에 나섰던 사회단체의 회원들은 인삼축제를 홍보하면서 금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나아가 지역 주민으로서 인삼축제의 성공개최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져 금산인삼축제가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 제18회 1998년 : 문화관광축제로의 성장(9. 10 - 9. 14)

1998년 금산인삼축제의 경우 문화관광축제로서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진 축제로서 관광상품으로서 축제의 질적 향상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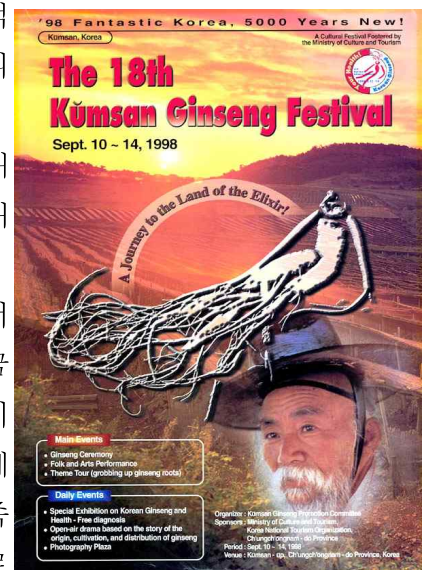
특히 문화관광축제에서의 핵심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 시설, 주차시설, 행사진행자들의 친절성 등에서 전년 대비 개선노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수와 구성에 있어서도 문화관광축제로서 외부관광객 비율이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산인삼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서 성장하고 있는 축제임이 증명되었다. 이는 축제기간동안 금산 인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지역주민의 노력에 따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축제를 통해 인삼 관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관광객들에게 높아진 결과이다.

특히 인삼캐기여행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금산에서만 볼 수 있는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았다.

금산인삼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인삼요리판매거리, 인삼요리 30선, 인삼생산경진 및 체험, 한방무료진료 등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축제를 통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이 인식되어 인삼하면 금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잡은 축제였다.

특히 1998년의 경우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금산인삼축제를 통해 금산 인삼을 알리는 계기가 된 행사로서 웰빙 생활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금산 인삼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한 해로서 다양한 인삼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금산 인삼에 흥미를



가지고 인삼의 우수성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축제 주체측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축제 팸플렛을 제작하고 외국어 사인판을 준비하는 등 문화관광축제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이 좋은 효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축제행사장 및 인삼체험의 장을 볼거리와 살거리로 연계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목적형,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을 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였고 행사 종목별 외국어(영어, 일어)멘트를 통한 진행으로 국제적 행사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 제19회 1999년 : 전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9. 7 - 9. 13)

1999년에는 축제장의 이전, 축제기간의 연장, 국제인삼교역전 개최, 품격 높은 인삼음식 개발 등을 통하여 금산인삼축제가 더한층 발전하였다.

관광객 중심의 쾌적하고 넓은 행사장 구성 및 인삼약초를 주제로 베스트 7 체험이벤트 및 문화체험코너를 운영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관광객 설문조사 부문 전국에서 1위를 거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장을 인삼약초시장 인근의 네거리에서 인삼종합전시관으로 옮겨 실내에서는 인삼 및 약초에 관한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외 광장에서는 인삼체험, 음식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축제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축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축제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금산인삼축제를 국제적 이벤트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축제기간 중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하였다.

경험이 부족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또한 미흡하였기 때문에 불과 52만달러의 교역성과박에 얻지 못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농림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인삼음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동양요리 33선’, ‘서양요리 22선’ 등 모두 55선을 인삼축제에 초청된 주한외교사절을 비롯한 귀빈들에게 오찬으로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표 1> 인삼요리 개발 내역

분야별	메뉴
동양요리 21선	보양식 6, 식사류 4, 반찬 및 안주류 6, 후식 5
전통음식 바リエ이션 12선	전채요리 2, 반찬 및 안주류 6, 후식 4
서양요리 22선	에피타이저와 샐러드 7, 메인디쉬 10, 디저트와 드링크 5

자료 : 금산군(1999)

1999년도부터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하였는데 금산인삼축제가 방문객 설문조사 부문의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지역적인 자긍심이 크게 높아졌다.

■ 제20회 2000년 : 국제적 축제로 성장 가능성 모색(8. 25 - 9. 3)

새천년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던 2000년을 맞아 금산인삼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눈, 귀, 맛, 향기와 온몸을 만족시키는 오감체험축제로서 다양한 특별체험이벤트를 개최하여 전국최고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축제의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하여 축제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두 번의 주말과 두 번의 장날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과가 미미하였던 국제인삼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해외의 우량 바이어를 초청토록 하고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참가기업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성과가 전년도의 4배에 가까운 238만달러에 이르러 음식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었는데, 2000년 인삼축제 기념품으로 인삼의 이미지를 활용한 ‘아젠다’라는 패션브랜드를 개발한 것이다.

건강의 상징인 인삼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건강을 챙긴다는 의미를 담아 인삼문양을 넣은 넥타이, 벨트, 목걸이, 손목시계, 침대보 등 모두 57종이 개발하였는데, 품격 높은 기념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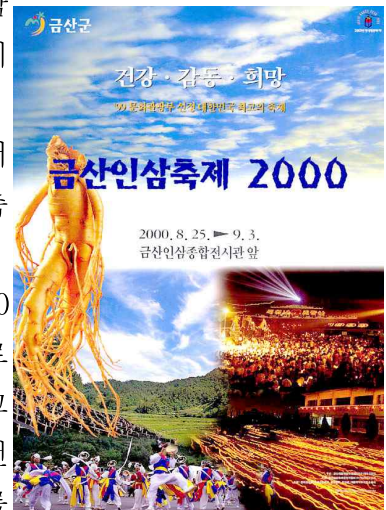
<표 2> 인삼문양을 활용한 기념품 아젠다 개발 내역

분 야	품 목	종 류	비 고
계	26	57	
패션소품	8	24	넥타이, 스카프, 벨트 등
의류	5	7	티셔츠, 원피스, 잠옷 등
악세서리	4	8	카우스버튼, 목걸이, 열쇠고리 등
생활용품	5	11	시계, 우산, 지갑, 비누 등
주방용품	3	6	찾잔, 티스푼, 머그컵 등
침구	1	1	침대보

자료 : 금산군(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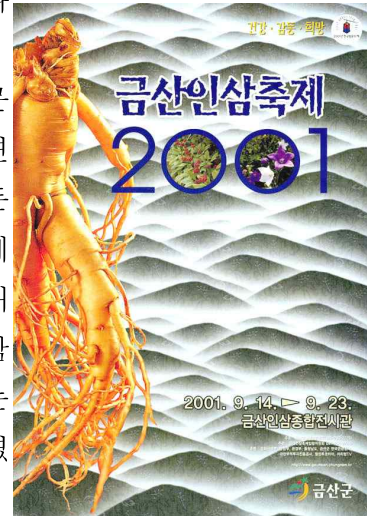
■ 제21회 2001년 : 인삼약초거리를 축제 중심으로 조성(9. 14 - 9. 23)

2001년 금산인삼축제는 최고의 금산인삼과 함께하는 축제로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건강축제’와 ‘모두가 하나되어 한바탕 함께 하는 감동축제’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새천년 희망축제'로 테마를 구분하여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금산의 인삼약초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삼약초 전문 시장으로서 금산인삼축제 주행사장인 인삼종합전시관과 연결하여 위치해 있다. 금산인삼축제를 찾아오는 거의 모든 관람객들이 쇼핑을 하는 이곳을 '건강신시'로 조성하여 축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건강신시'는 삼한시대에 도둑이 들어가도 잡지 않았다는 신성한 구역 '소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건강신시'인 인삼약초의 거리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건강을 선물 받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인삼약초시장의 입구에 돌탑을 쌓고 솟대, 장승, 금줄 등을 설치하였으며 거리 양측에는 전통식 오방기를 세워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양쪽 인도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인삼약초 제품을 풍성하게 진열토록 하여 거리 자체를 볼거리로 만들었다. 또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인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행사장에서만 개최하던 마당극과 전통민속놀이를 신시로 옮겨 관광객들이 다양한 거리공연을 참여형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쇼핑을 하도록 배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금산인삼축제는 주행사장인 인삼종합전시관과 인삼약초시장 등 2곳에 중심축을 갖게 되었다.

■ 제22회 2002년 : 오감체험형 축제로 개최(9. 6 - 9. 15)

2002년 금산인삼축제는 온몸으로 체험하는 지구촌 최고의 건강축제, 생생한 즐거움과 신명이 살아있는 웃음축제, 모두가 하나되어 한바탕 함께 하는 희망축제를 주제로 개최하여 4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2002년에는 당시 이벤트 분야에 큰 흐름을 형성하였던 5감 체험형 축제를 시도하였다. 주행사장에 전시와 공연을 중심으로 한 볼거리, 인삼음식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인삼체험을 중심으로 한 만질거리, 농악체험을 중심으로 한 들을거리, 판매를 중심으로 한 살거리 등 5감체험 코너를 조성하였다.

이 해 금산인삼축제는 웃음을 프로그램화하고 개막행사에 일대 혁신을 꾀하였다. 인삼은 건강의 상징이고 건강의 가장 바람직한 표현은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그린 웃음이라는 판단하에 축제의 주제를 웃음으로 정하고 군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그린 웃는 얼굴 600여점을 주행사장에 전시하여 웃음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개막행사는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겨 웃음을 주제로 하는 이벤트로 바꾸고 관람객들이 지루하게 느끼는 축사는 아예 없애버렸다.



또한 금산인삼축제의 개최시기를 추석 연휴 직전으로 고정시켰다. 그 때는 인삼이 수확되는 시기로서 추석선물용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타 지역의 유명 축제가 없어 관람객 유치에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축제시기를 고정시킴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홍보시기도 앞당길 수 있었다. 지금도 금산인삼축제는 당시에 정해진 원칙대로 추석 연휴 직전에 개최하고 있다.

■ 제23회 2003년 : 국제적 축제의 기틀 마련(8. 29 - 9. 7)

온몸으로 체험하는 지구촌 최고의 건강축제, 생생한 즐거움과 신명이 살아있는 웃음축제, 모두가 하나되어 한바탕 함께 하는 희망축제를 주제로 개최하여 5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축제의 국제화에 매우 중요한 국제인삼교역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삼전문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여 고려인삼이 혈압의 조절, 혈당 강하, 두뇌활동 개선, 피로회복, 진정 효과 등에서 외국인삼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국제인삼교역전에 참여한 바이어들에게 발표하였다. 이에 바이어들의 고려인삼에 대한 반응이 크게 높아져 무려 1,359만달러의 교역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는 교역전 첫해 성과 52만달러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제인삼교역전이 완전히 정착단계에 오를 수 있었다.

축제음식의 전문화와 고품격화를 겨냥하여 축제장에 인삼약초요리 전문판매코너를 설치·운영하였다. 참가업체에 대하여 '63선의 인삼요리'를 새롭게 개발한 전문가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주선하고 축제장 음식으로는 인삼약초 요리만을 취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늘 선물 금산인삼'의 문양이 들어간 품위 있는 생활도자기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토록 하고 종사자들의 복장은 인삼티셔츠로 통일시켰다.

한편 가격이 명시된 세련된 디자인의 메뉴 현수막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토록 계도하였다. 다른 지역의 축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고 수준이 높으며 주제를 반영한 전문음식코너를 탄생시킴으로써 축제장 음식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 해의 축제장에는 여러 외국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졌다. AP, 로이터, AFP 등의 통신사와 CNN, CC TV 등의 방송 취재진이 국제인삼교역전을 중심으로 인삼축제를 적극 취재하는 등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2003년도 국제인삼교역전 성과

참가업체수			참가바이어수		교역성과
계	군내업체	관외업체	국내	해외	
40개	26개	14개	15개	10개국 55명	13,585천달러

자료 : 금산군(2008)

■ 제24회 2004년 : 국제적 축제로서 세련미 강화(9. 10 - 9. 19)

2004년 축제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삼 축제로서의 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련미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국제적 축제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국내 최고의 향토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 축제로 반돋음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관람객들에



게 마치 인삼밭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자 주행사장의 모든 체험부스를 인삼포 형태로 조성하였다. 나무와 억새밭 그리고 짚을 이용하여 만든 인삼포형 부스는 주제 반영형 부스로써 기존의 몽골텐트보다 우리 정서에 잘 맞고 시각적으로도 훌륭하며 또한 햇볕을 잘 막아주어 축제장을 찾은 전문가 및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들었다. 때마침 인삼축제장을 찾은 호주의 세계적인 축제기획자 매기 맥과이어는 인삼포형 부스를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특색있는 축제 부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중화권 사람들이 고려인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착안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중화권 기자단 100여명을 인삼축제장으로 초청하였다. 이들을 통해 중국의 유력 중앙일간지 전면에 금산인삼축제 관련 기사가 게재되는 등 중화권에 인삼과 축제를 홍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금산군은 2004년 여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유니세프의 협력대사인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패션쇼를 금산인삼축제 프로그램으로 유치하였다. 앙드레 김의 패션쇼는 주한 외교사절의 부인들과 안성기·강수연 등 인기배우들이 모델로 출연하여 큰 인기를 모았다. 세련된 행사장과 화려한 조명, 뛰어난 연출력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이같이 수준 높은 이벤트를 통하여 금산인삼축제가 세련된 축제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웃는 얼굴 그리기 행사도 유니세프와 협력함으로써 국제적 이벤트로 키울 수 있었다. 모두 10여 개국 어린이들이 그린 웃는 얼굴이 축제장을 장식하면서 국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축제장 내·외부의 편의시설도 고급형으로 설치하여 품격 높은 축제로서의 이미지 확산에 주력하였다. 화장실은 모두 에어컨이 가동되는 이동식 트레일러형으로 배치하였고, 행사장 내에 공중전화와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

였다. 외국인들을 배려하여 팜플렛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각각 제작하였고, 모든 안내판에 외국어를 병기하였으며, 통역안내원을 대폭 증원하였다.

■ 제25회 2005년 : 프리엑스포 형태로 고품격화(9. 2 - 9.11)

2005년의 금산인삼축제는 2006년도에 열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한 프리엑스포 형태로 개최되었다. 우선 행사장을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고품격화 하였다. 전년도까지 축제의 주행사장으로 사용되던 인삼종합전시관 맞은편에 2005년 여름 국제적 수준의 외관과 내부시설 그리고 넓고 깨끗한 광장을 보유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었다. 이곳을 활용하여 주행사장을 조성하였는데 실외에는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주제관을 만들어 인삼



대표성과 고급화에 초점을 두어 금산인삼축제의 역동성을 글씨체로 표현하고 전체바탕을 금색으로 표현, 인삼의 고귀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포스터 중앙에 인삼을 형상한 일러스트를 도입, 붓터치를 활용하여 한국적미를 부각시킴
차후 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간결한 구성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형성, 호기심을 자극하는 포스터임

2005

의 효능 위주로 전시물을 설치하고 인삼약초꽃동산을 조성하였다. 주행사장 광장에 설치한 체험관, 음식관, 판매관의 모든 부스를 인삼포형으로 조성하여 초현대식 유통센터와 전통식 인삼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실내에는 교역관, 건강체험관, 고급인삼요리 판매코너, 웃는 얼굴 그리기 작품 및 인삼애니메이션 전시장으로 꾸며 행사의 품격을 높이면서 관람객들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다. 그리고 강력한 경비용역사를 활용하여 외지상인들에 의한 음식점의 난립을 철저히 막아냈고 축제장 전 구역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축제 공간을 확충하고 안전도를 높였다.

국제인삼교역전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신제품이 선보인 가운데 13개국 67명의 우량 바이어들이 참가하여 교역성고가 1,500만달러를 돌파하였고, 세계 유일의 인삼교역전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확보하면서 금산군이 세계 인삼교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삼교역전은 외국 바이어들만을 위한 행사에서 발전하여 국내 바이어들 및 내국인들에게 다양한 인삼제품을 소개하는 장이 되었고 축제기간 중 3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림으로써 신제품 판매장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류의 욕망은 역사 이래 모든 이들의 공통된 화두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홍삼물로 족욕하기, 홍삼으로 얼굴 마사지하기, 총명환 만들기, 방향첩 만들기, 나의 체질 알아보기 등의 코너를 건강체험관에 설치하였다. 또한 당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줄기세포 복제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어릴 적부터 쇠젓가락을 사

용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외국 언론의 주목에 착안해 ‘젓가락으로 인삼씨앗 고르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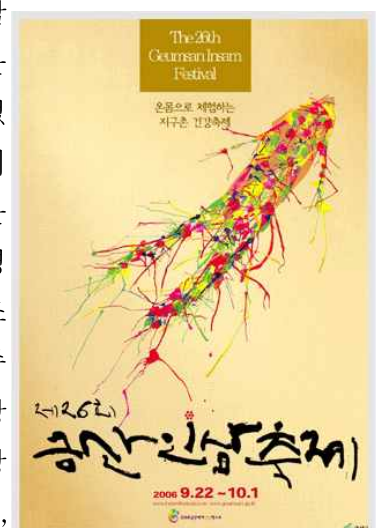
2005년 축제를 통하여 인삼음식 프로그램은 다양성과 품격 면에서 한층 수준이 향상되었다. 전통음식 전문가 한복려 선생이 운영한 인삼요리 전시코너는 정갈한 음식과 세련된 연출로 국내외의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전국인삼요리경연대회에는 우수한 조리사들이 대거 참가하여 빼어난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고 국제행사로 개최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인삼 스페셜 한정식 코너에서는 고가의 요리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인삼요리만들어먹기 체험코너에는 가족·친구끼리 찾아온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으며, 인삼카페에서는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홍삼아이스크림·인삼주스·인삼팔빙수 등을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다.

인삼은 주로 중장년 이상의 계층에서 선호되기 때문에 인삼축제하면 청소년들과는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역동적인 축제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활력이 넘쳐나는 인삼그림과 ‘힘’자 글씨를 새긴 초대형 현수막을 주행사장 벽면에 내걸고, 스타급 선수들이 벌이는 스타크래프트 게임, 청소년 댄스 및 가요 경연대회, 젊은층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연에 환호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인삼축제가 젊은이들에게도 매력 있는 축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대표축제로서 금산인삼축제의 발전과정(2006 -)

■ 제26회 2006년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축제의 동시 개최(9. 6 - 9. 15)

2006년에는 역사적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두 행사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종전에 인삼축제 주행사장으로 사용되던 인삼종합전시관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엑스포 행사장을 조성하고 전시·교역·학술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인삼축제는 인삼약초시장을 활용하여 행사장을 조성하고 체험·마당놀이·쇼핑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였다. 인삼축제장으로 꾸며진 금산인삼약초시장은 거리를 건강의 이미지로 특화하여 차도와 보도를 단장하고, 가로등을 인삼의 모형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였으며, 각 상점의 간판도 일정한 규격과 색상으로 통일시키는 한편, 주변의 공터를 정리하여 광장을 조성하고, 하천도 친환경적으로 말끔하게 정비하였다.



인삼축제는 1960년대와 70년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인삼수확기의 금산의 모습을 모티브로 축제장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인삼약초시장 거리에 인삼포형 부스를 설치하여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수삼 무게 맞추기, 젓가락으로 인삼씨앗 고르기, 인삼깎기, 인삼접기, 인삼주 담가가기, 인삼음식 만들어먹기, 인삼발찌기, 인삼포 조성하기, 약초썰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 체험코너 종사자들에게는 전통한복을 입도록 하고 운영은 전문레크리에이션 강사들에게 맡겨 매끄럽고 재미있게 진행토록 하여 관람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2006년의 인삼축제는 독특한 행사장 조성과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원활한 진행 등으로 축제 전문가와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동시에 개최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엑스포의 성공을 바탕으로 금산인삼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인삼엑스포와 인삼축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바람직한 시너지 효과를 거둬으로써 한 지역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엑스포와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유명한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지역이 정부로부터 축제육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발전의 기폭제로서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제27회 2007년 : 대표 축제로서 금산인삼축제(9. 7 -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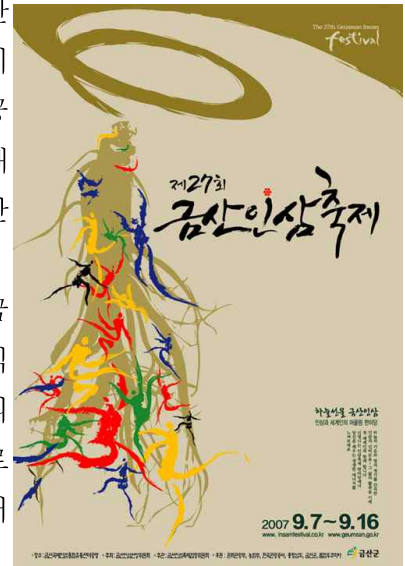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였으며,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적인 산업형 축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 행사명 : 『제27회 금산인삼축제』
○ 기간 : 2007년 9월 7일(금) ~ 9월 16일(일) 10일간
○ 장소 :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 주제 :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
○ 주최 : 금산인삼선양위원회
○ 주관 :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농림부,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 금산군, 웰컴투코리아
○ 깨끗한 자연과 강인한 이미지가 삶의 활력을 주는 건강축제
○ 전통의 풍류와 현대적인 멋이 조화를 이루는 감동축제

2007년 금산인삼축제의 개최공간은 전년도인 인삼약초거리에서 기존의 엑스포공간을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진택서관과 금산인삼전시관을 주축으로 일정공간에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공간구성전략이 ‘행사내용(프로그램)의 흥미성’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년에는 인삼약초거리에서 개최됨에 따라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들이 외진 곳에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반면, 금년에는 엑스포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방문객들의 주요동선에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쉽게 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2006년 엑스포와 축제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금산인삼축제의 행사장이 인삼약초시장으로 이동하여 휴식공간과 화장실을 주변상가에서 의존하였던 것과는 달리 금년에는 엑스포 사후 기존 하드웨어시설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에 따라 휴식공간과 화장실 등 시설 보완이 이루어졌다.



금년 금산인삼축제는 축제시설물을 강화하여 보다 세련된 이미지로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세계인삼엑스포 이후 사뭇 방문객들의 기대감이 하락할 수 있었던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먼저, 축제장 내 전시관 막구조물(TFS 대형텐트)을 설치하여 인삼주제관과 국제인삼교역전을 배치하였으며, 인삼건강박람회와 세계 스트롱맨 챔피언쉽을 유치함으로써 임시시설물을 강화하여 엑스포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삼주제관의 경우, 인삼형태의 대형구조물을 중심으로 인삼정보를 제공하는 전시구조물을 세련되게 제작하였으며, 건강을 위한 발지압코스를 만들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며, 특히, 인삼생활관은 모텔하우스형태로 제작하여 인삼과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어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삼옛날장터에서 진행된 인삼로드쇼의 쇼케이스는 이동식의 진열대 형식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였으며, 세련된 디자인의 쇼케이스 내 다양한 인삼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인삼제품의 판촉효과를 높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축제프로그램의 신규개발노력과 함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금년 인삼장터체험의 경우, 수걸체험, 산가지체험, 보부상체험 등이 개발되어 조선시대 인삼장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삼제품홍보를 위해 개발된 인삼로드쇼의 경우에도 금년 처음으로 선보여 동상퍼포먼스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건강체험관의 경우에도, 홍삼죽욕, 홍삼팩마사지체험 등 일부 기존의 체험프로그램들이 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건강체험의 기회를 증가시켜 방문객에게 만족을 증대시켰다.

또한, 세계 스트롱맨 챔피언쉽, 인삼건강박람회 등 대형행사를 축제프로그램으로 유치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007년 금산인삼축제는 관람객이 97만명(외국인 관광객수 5,800명 포함)으로 목표치 90만명을 웃돌았으며, 총 76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각종 인삼관련 제품의 판매실적도 170억원에 달하는 등 그 동안의 축제와 비교해서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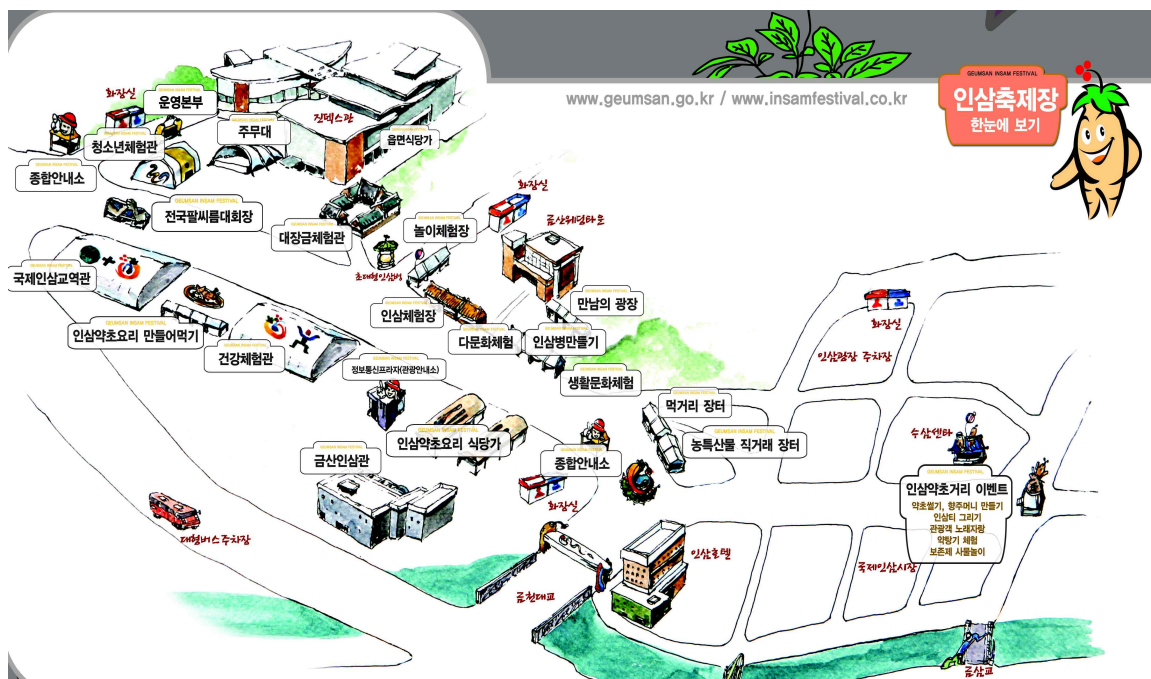
인삼의 해외수출 계약액도 국제인삼교역전을 통해 1,118만 9천달러(한화 106억원)의 무역성과를 얻어냈으며, 지난해 인삼축제 대비 상담계약이 2.5% 증가하는 등 목표치를 훌쩍 뛰어 넘어 성공한 축제로 기록되었다.

지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활발하였는데 31개 단체에서 하루 380여명의 봉사자가 인삼차 및 급수, 교통, 청소, 통역, 문화체험, 행사지원 등 23개 부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 제28회 2008년 : 세계 축제로서의 금산인삼축제(8. 29 - 9. 7)

지구촌 건강 축제 이벤트로서 전통의 풍류와 현대적인 멋이 조화를 이루는 감동의 축제, 국내 최고의 향토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 행사명 : 『제28회 금산인삼축제』
 - 기간 : 2008년 8월 29일(금) ~ 9월 7일(일) 10일간
 - 장소 :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 주제 :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 주최 : 금산인삼선양위원회
 - 주관 :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 금산군
-
- 인삼약초, 문화, 건강 3대 분야별 베스트 이벤트 선정
 - 가장 한국적인 프로그램 전개와 민박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주행사장 주변 공간 확충, 우회도로확보 및 주변산지의 공원화 추진
 -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시스템 구축 및 안내요원의 국제매너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



2008년 금산인삼축제의 개최공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엑스포공간을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진텍스관과 금산인삼을 주축으로 일정공간에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공간구성전략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금산인삼축제 전용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 엑스포 행사장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 전용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방문객들의 주요동선에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쉽게 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엑스포와 작년 축제를 개최하면서 엑스포장의 하드웨어시설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에 따라 휴식공간과 화장실 등 시설 보완이 이루어졌고 시설 활용에 있어서도 짜임새 있는 시설 활용과 필요시설의 보충에 따라 전체적으로 행사장 구성이 금산인삼축제에 적합한 주제반영형 행사장을 이루었다.



2008년 ‘행사내용의 흥미성’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건강체험관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체험관은 돔형태의 별도의 공간에서 전년도보다 공간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방문객들이 건강체험관 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접함으로써 흥미성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8년 축제에서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6%의 비율로 건강체험관이 1위를 차지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건강체험관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인삼약초 발 쫄쫄코너로 관찰되었는데, 방문객 인터뷰결과 타 체험프로그램과 달리 대기시간 없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제를 함께 온 가족이나 단체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대장금체험관이 신설되어 드라마 세트장으로서 당시의 수라간을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포토존으로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라간 내에는 식문화전시관, 인삼차, 인절미 시식, 장금이 의상 입어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배치되었으며, 특정시간대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금산인삼축제는 관람객이 98만명(외국인 관광객수 7,200명 포함)을 유치하였는데, 개막식에 1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하는 등 일찍부터 성공개최가 예감되었으며, 경제효과에 있어서도 8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전국 최우수 산업형 관광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8년 연속 100억원대 무역성적을 기록한 국제인삼교역전, 궁중음식문화를 테마로 한 장금이 수라간, 생활건강체험관, 금산인삼관, 청소년 테마존 등 전시체험코너는 다양

한 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축제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명품축제를 확인시키듯 세계적인 다큐 채널 디스커버리, 소련 모스크바 N-TV, KBS JAPAN, 중국 NTD-TV 등 10여개의 해외 및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지역민들의 자원봉사가 축제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10일 동안 31개 단체 2,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몸을 아끼지 않은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 금산인삼축제 문화관광축제 명예 졸업(2013년 33회)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10회 선정, 2010년 세계축제협회 이벤트 도시 선정, 2011-2012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 수상까지 금산인삼축제의 명성은 이어지다 문화관광축제에서 명예 졸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금산인삼축제를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 더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기회와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배우자는 의미에서 해외 우수축제를 연구하고, 자매결연 국가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인근 지역의 지자체와 관광벨트 개발과 축제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③ 인삼축제 역사를 통해 살펴본 발전과제

① 자립화를 위한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전환 시점

- 34회째를 맞이한 금산인삼축제는 산업형 축제로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필요
 - 인삼축제는 그 동안 금산군이 주관하는 관주도형의 축제였으나 민간이 함께 주도하여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개최되어야 할 시점임
- 특히, 33회부터 금산인삼축제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에서 명예 졸업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자립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인삼축제의 최대 수혜자는 인삼약초 관련 생산자와 사업체로서 수익자 부담 또는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됨

② 민간주도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필요

-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하거나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있어야 함
 - 민간기관이나 단체는 인삼축제와 관련이 있는 인삼약초 생산자와 사업체 등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함.

- 또한, 금산인삼축제시에는 외래 방문객들이 찾아와 음식점 및 숙박, 관광시설 등을 이용하므로 금산군의 관광업체 및 상가번영회 등의 단체도 참여가 이루어져야함
 - 인삼약초거리의 상가들과 식당, 숙박시설, 특산물판매점 등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사업체의 번영회 등도 단체에 참여토록 해야함

③ 기관 주도형 인삼축제 운영사업의 추진

- 금산인삼축제가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관주도형으로 축제의 기획과 운영사업이 추진되어야함
 - 이를 위해서는 공공에서는 행정지원을 하면서 민간기관도 재정적 분담과 함께 직접 인삼축제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관을 설립하여 인삼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행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인삼축제가 기관 주도형의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제기획부와 운영관리 부서를 구성해야함

④ 민간 조직과 사업체, 주민들 주체 행사프로그램 분담 필요

- 금산인삼축제가 민간기관의 주도로 자립화 되더라도 실제 축제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사업체와 지역주민이 주체하는 행사 참여가 이루어져야함
 - 민간 행사참여는 우선 전통민속과 문화예술 행사, 이벤트 등에 있어서 지역의 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직접 행사프로그램 준비하고 진행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나아가, 공공에서의 축제지원 예산도 필요하지만 민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참여도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자립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민간기관의 기본 재정확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와 군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의 분담도 이루어져야 함.

2.

법인에 대한 정의와 비교 검토

① 사단법인의 정의와 특성

① 의의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재단법인(財團法人)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② 목적과 설립

-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教),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때에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③ 기관

-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이 있다. 이 중 사원총회와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④ 의사결정 및 해산

-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므로,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이 설립

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사단 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77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관변경이 엄격하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있을 수 없다.

② 재단법인의 정의와 특성

① 의의

- 사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된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出捐)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② 목적과 설립

-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慈善)·기예(技藝)·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예:고아원·양로원 등)·의료법인·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설립행위(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32·33·43조).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48조),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인에 귀속된다.

③ 기관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 감사(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④ 권리 및 행위능력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4조).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재단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인 이사가 하고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나,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며 이사 개인의 행위가 된다. 실재설에 의하면 불법행위능력도 가진다.

⑤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44~46조). 재단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설립허가의 취소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77조 1항).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이 완료되어 청산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81·94조)..

③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비교와 구비서류

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특성 비교

분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것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법인격을 가진 것
본질적 차이	자율적 법인	타율적 법인
설립행위	2일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40)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43, 48)
정관변경	총회결의 + 주무관청 허가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있을 때 한함(§45①) ② 명칭/주소지는 일정 경우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아도 변경가능(§45②) ③ 목적달성불가시 ; 주무관청허가-변경가능(§46)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사, 감사
의사결정	사원총회	정관에 정한 목적
해산사유	① 양법인에 공통되는 사유-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달성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② 특유한 해산사유-사원이 한사람도 없게 된 경우 총회의 해산결의 (§77)	양법인에 공통되는 사유 외에 특유한 해산사유 없음

②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② 설립취지서
- ③ 재단법인 출연자 인적사항
- ④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⑤ 임원취임 승낙서
- ⑥ 창립총회 회의록
- ⑦ 정관
- ⑧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⑨ 재산출연증서
- ⑩ 기본재산 목록과 입증서류

⑪ 보통재산 목록과 입증서류

⑫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재단의 경우,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⑬ 사무실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③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비교

□ 재단법인 :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고 설립자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입니다. 또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 발전 시켜나가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해 타율적 고정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기부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대표의 일을 행합니다. 재단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의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 의료법인 등의 예가 많습니다. 설립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내고 동시에 그 근본원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예를들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완성하는 등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 사단법인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으로써 이루어진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사단법인은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이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에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과, 학술 종교 사교 기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적십자사와 같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

-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은 아시리라 봅니다. 주무관청은 원래 보건복지부인데 행정업무를 산하 지자체에 권한을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회원과 활동지역,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어떤 시군에 한정된다면 주무관청은 시장이나 군수가 된다. 이 관청의 비영리법인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다. 만약 지역이 타 시군과 연계되어 있다면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혜자의 한정이라는 것은 의료혜택을 말하는 것이다. 공익적인 차원이라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비영리사단법인이라면 법인의 활동이 비영리성이면 된다고 보여진다.
- 공익법인은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표 5>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비교

구분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
설립 근거	민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목적 사업	영리가 아닌 사업(반드시 공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지급, 학술, 자선 등 사회 일반을 위한 공익 사업
허가 기준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타 법인과 같은 명칭 금지	사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재정의 안정성 공익의 적극적 유지·증진 가능성
감독 사항	사업계획, 수지예산·결산서 제출 필요시 사무 재산상황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임원 취임 및 재산변경, 수익사업 승인 장기차입 사전 허가 사업계획, 예산·결산서 제출 상근직원 정수 승인 등 수익사업 승인
지원 사항	※법령에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지원사항 없음.	기부금 법인세·소득세 감면 출연자의 상속세, 증여세 면제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 가치세 면제 등

③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의미 비교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비영리성 (비영리법인) 우선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등과 달리 비영리 법인이다. 즉 비영리를 추구하여야 한다.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미(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의 구별)
 -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2인 이상이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법인)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주어진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이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임에 반해 사단,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전혀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비영리사업을 추구하는 과정상 부수적인 한도내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별

- 사단, 재단법인의 근거법령은 민법임에 반해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칭한다.)이 준거법이 된다.
- 공익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이 근거법률이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공익의 개념에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허가관련

- 현행 민법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제32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무관청의 의미란 법무부 해석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예를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은 시·도교육감이 설립을 허가한다.(서울시교육청 참고자료 인용)

※ 주무관청의 범위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각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하며, 시·도지사나 같은 지방행정관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법무부 제1498호, 1962.04.25)

□ 주무관청의 관장사무

-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관청인 경우 :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단, 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고 법률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된다. 제3조(직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관광부가 주무관청인 경우 :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법률에 의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시장,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된다.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인 경우 :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 학술관련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췌한 내용) : 학술이라고 모두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개발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양의학 분야라면 보건복지부, IT공학 분야라면 정보통신부(현재는 지식경제부), 예술진흥·체육정책·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야라면 문화관광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학과법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하는 교습과정은 학술(學術)과 달리 교육(教育)에 대한 과정으로, 모든 「학술」을 교육인적자원부의관장사무라고한다면, 자동차·건축·관광자원·통신·항공·토목·교통·영화·방송·국악·정보통신 등 모든 분야의 학술 연구에 관한 법인을 교인부에서 허가해야 하는 비합리가 나타난다.

□ 주무관청의 허가기준 (주무관청마다 상이)

-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즉, 목적과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상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적정한 회원수와 회비확보가 중요하다. 이외 과거1년 이상 객관적 사업실적이 입증으로 목적사업 수행능력을 판단한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이상이 확보되어야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다.

□ 허가신청시 기본적 필요서류 (부처별, 시도별 상이)

- 설립허가신청서

- 정관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설립절차

- 주무관청부서를 파악한다.
- 정관, 창립총회회의록등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 허가받은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다.
- 설립 관련보고(주무관청마다 상이)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수 확보가 중요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재산출연의사 및 확보가 중요하다.

3.

타 축제의 법인화 사례

1) 보령 머드축제 사례(재단법인)

1) 머드축제의 유래와 연혁

□ 머드축제 유래

- '96년 7월 대천해수욕장 인근 청정갯벌에서 채취한 양질의 바다 진흙을 가공하여 머드팩외 16종의 화장품을 개발하였다.
- 보령산머드화장품은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고, 외국산 제품에 비하여 게르마늄, 미네랄, 벤토나이트 성분 함량이 높아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광대 김재백 박사팀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으로부터 입증되었으며 2001년도에 ISO 9002 인증획득 및 2004년 미국식품의약국(FDA)안정성검사를 통과하였다.
- 따라서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로 성공한 “보령머드 화장품”과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코자 '98년 7월에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보령머드축제는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로 해수욕 및 머드체험을 동시에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청정갯벌에서 진흙을 채취하여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머드분말(mud powder)을 이용한 머드마사지(해변셀프 마사지, 침단머드마사지체험)와 머드체험행사가 운영되고 있다.
- 머드체험행사에는 대형머드탕, 머드씨름대회, 머드슬라이딩, 머드교도소, 인간마네킹, 캐릭터인형, 갯벌극기훈련체험, 갯벌스키대회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신이 빚어 놓은 듯한 환상의 섬 외연도를 비롯한 78개의 크고 작은 섬과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무창포 신비의바닷길, 한여름에도 오싹한 냉풍욕장, 석탄박물관, 국보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 36점의 귀중한 문화 유산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어 연계관광으로 “문화관광보령”을 알리고 보령머드화장품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

□ 머드축제의 연혁

- 보령머드축제는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7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축

제 중 외국인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서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데 이어 2008년~2010년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 2011년 축제 탄생 14주년 되는 제14회부터는 머드축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체험시설을 유료화하며, 재정 자립기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 재단법인 설립 운영사례

□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법인화 추진(2010/12/6:인사이드충남) 과정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와 머드축제 전문조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자생력 강화로 사실상 보령시가 주도해 왔던 대한민국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민간주도로 전환하였다.
- 보령시는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령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 추진 주체를 법인화해 수익사업을 통한 축제 재정 자립과 민간조직으로 독립시켜 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다.
- 그 동안 보령머드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축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법인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2011년부터 대표 축제에서 명예축제로 바뀌면서 매년 지원됐던 국비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이 절실해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제정되는 조례안은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라고 하며, ▲법인의 기구 구성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 ▲결산 및 감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보령시는 조례 제정안을 2011년 1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충남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조직위원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머드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 보령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 2011년 4월 7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창립(발기인) 총회에는 보령시장을 비롯한 법인설립 발기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수익사업 등을 의결했다.
- 이날 창립총회에서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정관을 심의하고 보령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확정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 그 동안 보령머드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축제 운영의 자

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법인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2011년부터 대표축제에서 명예축제로 바뀌면서 매년 지원됐던 국비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이 절실히 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



- 2011년 열네번째이자 법인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축제예산이 지난해 32억원에서 올해 18억원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머드주제관 등 불필요한 행사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야간 행사가 축소돼 개최될 것이다.
- 축소된 예산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명예 대표축제의 위상에 맞는 체험형 관광 축제 정착을 위해 머드 에어바운스 체험, 머드 셀프마사지 및 칼라머드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난해 보다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이사장), 감사, 사무국장, 총무팀, 홍보운영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머드축제 조직위원회 구성



② 문경오미자 축제 사례(재단법인)

1) 문경오미자축제의 유래와 연혁

□ 문경오미자축제 유래

- 문경은 조선시대 각종 인문기록에 오미자가 특산물로 수록되어 있고, 전국 오미자의 생산량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오미자의 대표적인 고장이다. 문경오미자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백두대간 자락 일교차가 큰 기후라는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수년 간의 연구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 문경은 세계 최초로 설립한 오미자 연구소를 기반으로 친환경 재배, 다수확 품종 등 최상품의 오미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오미자 음료와 주류, 초콜릿, 빵 등 100여가지 가공품을 제품으로 개발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문경오미자축제는 백두대간의 해발 300~700m 준고랭지에서 생산되고, 기상여건이 좋아 최고 품질의 오미자가 생산되고 있어, 다양한 맛과 효능을 지니고 있는 문경오미자를 국내시장 선점을 넘어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오미자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문경오미자축제 연혁

- 2005년에 시작된 오미자축제는 '함께 맛보는 오미(五味), 함께 느끼는 오감(五感)'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할미성 산행대회를 비롯해 오미자 퀴즈, 오미자 깜짝경매, 오미자 수확과 천연염색 체험, 오미자 슬러시 빨리 마시기 등의 중요행사와 품바공연, 군악대연주, 마술공연 등의 부대행사로 개최된다.
- 문경시는 오미자 홍보관과 음식전시관을 마련해 오미자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장과 동로면 일원에 오미자 판매장을 개설해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오미자를 판매하고 있다.
- 2014년 제10회 문경오미자축제는 오미자문화복지센터 일원에서 '다섯가지 맛의 비밀 문경오미자' 라는 주제로 사흘 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국의 내 이름은 오미자씨' 초청이벤트, 디카사진콘테스트, 오미자거리 퍼레이드, 오미자 비빔밥 <사진> 등의 퍼포먼스와 오미자청 담기, 수확체험, 오미자 네일아트, 오미자 헤나 등 다양한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2) 재단법인 설립 운영사례(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출범(연합뉴스, 2014. 3)
 -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축제를 전담해 운영하는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 재단은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문경오미자축제, 문경사과축제, 문경한우축제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 문경시는 축제를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면 민간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직위를 설립했다. 조직위 실무진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됐다.
-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기능과 구성
 -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문경시 대표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 등을 주관 운영하는 법인으로 축제의 연속적인 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주도의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 문경시는 (재)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그동안 축제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고, 축제 전문성을 높여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 한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이사회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저명인사 및 각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총 11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춘천마임 축제 사례(사단법인)

1) 춘천마임축제의 특성과 성격

- 춘천마임축제 유래
 - 호반(湖畔)의 도시 춘천에서 198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춘천국제마임축제는 순수 공연(예술)과 축제(난장)의 복합적 형태가 어우러진 축제로서, ‘마임’ 장르를 한국 고유의 전통축제 양식을 통해 발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각국에서 초청된 팀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적 몸짓과 아시아적 전통을 바탕으로 마임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밤새 도심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도깨비난장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방문객 모두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제공하는 축제이다.

-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개최된 2014춘천마임축제는 '마음이 흘러 마임과 만나는 마임축제'라는 슬로건으로 2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해외 8개국 12개 단체를 포함해 국·내외 총 75개 단체가 함께 했다.
- 특히 공식 개막작으로 아시아에서 첫선을 보인 캐나다 아트서커스 팀 'T2C'의 현대적인 서커스 '리셋' 등과 지역내 기관 등을 찾아 마임, 풍선아트, 저글링,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했다.
-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는 2007, 2008, 2011년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이며 몸, 이미지, 움직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 공연과 거리 축제, 난장 등이 결합된 공연예술축제인 춘천마임축제를 20년간 운영하며 또한 마임의집 상설 운영과 마임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축제와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2) 사단법인 설립 운영사례

□ 사단법인 춘천국제마임축제 발기인 모임(2001.11.12)

- 마임과 춘천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칭)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모임을 구성하였다.
- 문화의 세기를 맞아 지역문화의 소중함이 급부상한 시점에서 사회 각계의 중론을 모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추진한 (가칭)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가 창립총회를 가졌다.
- 춘천마임축제는 사단법인이라는 분명한 시민문화단체로서 춘천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꾸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발기인 모임에서 설립추진위원회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을 준비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설립추진위원회 대표는 유재천(한림대학교 부총장)과 간사로 유진규(춘천국제마임축제위원장)이 맡아서 추진하였다.
- (가칭)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창립총회는 2001년 11월 20일(화) 오후6시에 마임의 집(옥천동 춘천예술마당 창작관 2층)에서 개최되었다.
- 조직구성은 이사장, 운영위원장, 총감독, 부감독 등 연출기획자 5명 구성, 축제 5개월전 전문기획자 단기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칭) 사단법인 춘천국제마임축제 운영기본계획(2001. 10. 12)

- (가칭)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추진계획- 2001년 10월중 법인설립 발기인 모임 개최.(각계 지도층 인사 150여명 참여)

- 2001년 11월중 법인창립회의 개최.(정관확정, 이사진 및 사무국 구성)
- 2001년 12월중 법인등록 완료

- (가칭)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사업(안)

- 춘천마임축제 개최(매년 5월)

마임을 비롯한 다양한 순수공연예술과 대중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 규모의 축제를 개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킨다.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설해 지역주민이 함께 꾸미는 세계적인 지역축제를 지향한다. 또한 사무국을 연중 상설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정보교환 및 자료 축적한다.

- ‘마임의 집’ 운영

- 1) 상설 주말공연

; 매주 토요일(연간 52회) ‘유진규네 몸짓’ 및 한국마임협의회 회원들의 우수 작품, ‘아시아 마임의 밤’ 및 춘천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특별기획공연.

- 2) 교육프로그램

- 시민 마임아카데미

마임을 배우려는 시민 누구나 마임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감성을 표현하게 한다. 마임을 배우게 되면 자신 몸 각 부분의 기능을 알게 되고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문화예술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한다.

- 어린이 마임단 운영

마임은 상상력과 창의력,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 마임의 교육적인면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표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어린이들의 눈으로 본 세상과 그들의 상상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마임을 통하여 표현예술을 통한 감성 및 인성의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한다.

- 상설극단 운영

14년간 춘천국제마임축제를 개최해오며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 인식시킨 극단 ‘유진규네 몸짓’을 세계적인 공연단으로 육성한다.

‘유진규네 몸짓’은 이미 수많은 해외초청공연을 통해 국제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마임극단이다.(프랑스 미모스마임축제, 독일 하노버엑스포 종교연극축제, 몽골국제마임축제, 폴란드 국제마임예술축제, 그리스 공연예술 축제 등)

‘유진규네 몸짓’ 공연단을 상설극단화 하여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확고히 한다.

- 정기공연 : 연 2회(5월 춘천공연, 11월 서울공연)

- 기획공연 : 장애인을 위한 공연, 벽지학교 공연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

한 공연활동.

○ 해외공연 : 2002년 영국 런던 국제마임축제

영국 에딘버러연극제, 미국 뉴욕 라마마극장 공연 등 추진중.

- 마임 및 문화예술정보 자료실 운영

마임 정보자료실은 한국마임의 발전사를 알 수 있는 공연작품집, 도서, 홍보물, 보도자료 스크랩, 평론, 사진, 비디오 등의 자료와 국내외 예술관련 활동자료 등을 비치, 개방하며 시민 학생 등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 아시아마임협의회 구성 및 본부유치

아시아권(일본 중국 몽골 대만 베트남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임예술가와 마임극단, 마임축제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이미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접촉을 가졌으며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

아시아마임협의회 본부를 춘천에 유치,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춘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 후원회 ‘마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구성

춘천마임축제는 지난해 강원도가 실시한 시·군 대표축제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문화관광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춘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마임 발전을 위한 기반 조직이 될 후원회 ‘마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문화시민 운동으로 누구나 ‘마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이 되도록 한다.

3) 춘천 마임 축제

- 사업비 : 8억 5천만원(12년 기준 국비, 시비, 매칭 3억, 협찬 2억, 티켓 및 기부금 의존)

- 사업기간 : 5월말 7일간

- 참가인원 : 16만명

- 조직 :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 직원 : 이사장, 운영위원장, 총감독, 부감독 등 연출기획자 5명 구성, 축제 5개월전 전문기획자 단기 4~5명 구성

4.

금산인삼축제 추진주체 법인화 방안

① 금산인삼축제의 법인 설립 대안 검토

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관련 인삼축제의 특성 비교

■ 인삼축제의 재단법인적 특성요소

- 인삼축제의 재단법인적 특성 요소로는 ① 공공주도형의 추진, ② 산업형 문화관광축제 성격, ③ 지역사업체 및 지역주민 참여, ④ 공공과 공동체 행사로 추진, ⑤ 관주도형 추진주체와 공공재원, ⑥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인삼축제의 사단법인적 특성요소

- 인삼축제의 사단법인적 특성 요소로는 ① 민간단체 일부 참여, ② 산업형 축제에 문화예술행사 성격, ③ 지역주민과 문화예술단체 참여, ④ 공공주도에 민간 참여 행사지원, ⑤ 지역단체 참여, ⑥ 부대행사에 부문참여 방식 등을 살펴볼 수 있음

<표 6> 인삼축제의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적 요소 비교

구 분	재단법인적 요소	사단법인적 요소
축제의 역사	· 공공주도형으로 추진	· 민간단체 일부참여
축제의 성격	· 산업형 문화관광축제	· 산업형 축제에 문화예술행사
축제 참여자	· 지역사업체 및 지역주민	·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참여
추진경위	· 공공과 공동체 행사로 추진	· 공공주도에 민간참여 행사 지원
추진주체	· 관주도형의 공공재원	· 지역단체 참여
운영방식	· 인삼축제추진위원회	· 부대행사에 부문참여

② 법인유형별 인삼축제재단 운영 특징 비교

■ 재단법인적 운영 특징

- 인삼축제의 재단법인적 운영 요소로는 ① 인삼축제 추진 기금 즉, 재원을 구성 요소로 하는 법인, ② 타율적 법인, ③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 ④ 정관변경에 대한 변경방법 정관기재 등, ⑤ 기관구성 이사와 감사, ⑥ 의사결정은 정관에 정한 목적, ⑦ 해산사유 없음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사단법인적 운영 특징

- 인삼축제의 사단법인적 운영 요소로는 ① 인삼축제 추진 이사진(사람) 즉, 단체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 ② 자율적 법인, ③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 ④ 정관변경은 총회의결로 주무관청 허가, ⑤ 기관구성은 이사와 감사, 사원총회, ⑥ 의사결정은 사원총회, ⑦ 존립기간 만료 등을 살펴볼 수 있음

<표 7> 법인유형별 인삼축제재단 운영 특징 비교

구 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의	· 인삼축제 추진 기금 즉, 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	· 인삼축제 추진 이사진(사람) 즉, 단체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
본질적 차이	· 타율적 법인	· 자율적 법인
설립행위	·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
정관변경	· 변경방법 정관기재 · 목적달성 불가시 주무관청허가	· 총회결의+주무관청 허가
기관	· 이사, 감사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의사결정	· 정관에 정한 목적	· 사원총회
해산사유	· 특유한 해산사유 없음	· 존립기간 만료, 목적달성 불능 · 사원이 한사람도 없을시
제안법인	○	

② 금산인삼축제 법인 설립 제안

① 법인 유형 : 재단법인

■ 금산군 지역사회 공익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

- 금산인삼축제를 주최하는 법인은 금산군내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와 군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개별적인 영리추구나 동호회 모임의 목적이 아닌 단체로 만들어져야함

■ 인삼축제를 주최·운영하는 지역대표 조직

- 인삼축제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법인은 설립자들이 추구하는 영리목적을 위한 자율적 구성 조직이 아니라 금산인삼산업과 지역문화의 상징인 금산인삼축제를 객관성과 공익성에 입각하여 주최·운영하는 지역 대표 기관이어야함

■ 공공재원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지역 공공기관

- 금산인삼축제 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관리되고, 금산군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지원하며, 참여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 주도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성격이어야함

■ 정관과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는 단체

- 법인의 설립행위와 정관변경, 기관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해산 등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운영참여보다는 정관과 이사회 등에 의해 운영·관리되어야함

② 재단명칭 : 인삼축제진흥 재단/인삼진흥재단

■ 1안 : 인삼축제진흥재단 또는 재단법인 인삼축제진흥위원회

- 인삼축제진흥 재단의 주요 사업은 인삼축제를 준비하고, 주최 및 평가, 발전시키는 업무를 중심으로 주로 인삼축제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시킴

■ 2안 : 인삼진흥재단 또는 재단법인 인삼진흥위원회

- 인삼진흥 재단은 앞의 인삼축제진흥재단은 인삼축제를 주요 사업으로 한정시키나 인삼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은 인삼축제, 인삼관련 문화행사와 학술행사, 인삼진흥포럼 등 금산인삼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 제안 : 인삼진흥재단(재단법인 인삼진흥위원회)

- 명칭은 인삼진흥재단(재단법인 인삼진흥위원회)으로 구성하고, 초기의 업무는 인삼축제업무로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직이 안정화되면 문화행사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확대

③ 재단 구성 및 운영

■ 이사회/감사 구성

- 이사장은 금산군수로 하고, 이사회 임원은 지역의 인삼산업 사업 대표자, 문화예술인 등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
- 감사는 금산군 기획감사실장(당연직) 또는 지역의 인삼산업 사업 대표자, 문화예술인, 회계사 등 중에서 적임자 선임

■ 운영조직 구성

- 인삼진흥재단은 금산의 인삼약초 기관 및 단체, 사업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인력으로 계획
- 운영조직은 사무국장 산하 총무팀과 행사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영지원팀과 행사운영팀로 구성하여 운영함

■ 인삼진흥재단 업무내용

- 사무처 : 인삼진흥재단 운영 및 관리, 회원관리, 진흥위원 사업 및 경영관리
- 경영기획과 : 진흥재단 조직운영계획 수립, 인삼축제와 인삼 관련 행사 및 이벤트 기획 등 축제계획 수립
- 행사운영과 : 축제행사 및 운영관리 지원, 인삼축제 및 각종 인삼약초관련 행사의 관리와 운영, 학술행사, 포럼구성 운영 등

③ 금산인삼축제 추진주체 법인화에 대한 당위성

① 금산축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로의 기능 전환

■ 지역축제로서 공동체 기능강화와 주민주도형 축제로 활성화

- 금산인삼축제는 초기 지역화합형 축제로 출발하여 인삼산업의 홍보를 위하여 인삼을 주제로 한 인삼제로 발전을 하였음.
- 따라서, 금산인삼축제가 인삼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기능이 강화된 지역주민주도형 축제로 개최되어야함

■ 적극적인 주민참여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의 기구 필요

- 그 동안은 공공주도형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최우수축제로 발전을 하였으나 주민참여형의 자립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플랫폼의 기능을 해야함.

② 추진주체 법인화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재정 자립화 필요

■ 문화관광축제의 명예졸업으로 공공예산 지원을 대체하는 예산 확보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던 문화관광축제로 지속 지원을 받던 금산인삼축제가 2013년 명예졸업을 하면서 공공예산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축제예산을 확보해야함

■ 경쟁력 있는 지역 자생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화가 필수

- 특히, 최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들은 공공예산의 지원 중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자생축제로 발전을 하는 재정자립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추진할 수 민간조직이 필요함.

③ 지연산업의 도약을 위한 사업자 참여로 홍보마케팅 강화

■ 인삼축제의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수혜자층의 참여 강화

- 금산의 핵심산업은 인삼약초산업으로 인삼축제의 개최목적이 이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므로 축제와 관련한 수혜자층들이 주도하는 지역단체를 설립해야함.

■ 지역상인 및 관련 사업체의 참여 촉진을 위한 단체 운영 필요

- 인삼축제를 개최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외 방문객이 찾아옴으로써 음식점과 숙박업소, 특산물판매점 등 다양한 지역상가와 업체들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운영해야함

④ 금산인삼엑스포의 정기개최를 위한 상설조직 설립 필요

■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조직의 구성 요구

- 2006년과 2011년에 이어 2017년에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메가이벤트 개최 지침에서는 지역참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기적인 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민간조직 구성이 필요함

■ 인삼축제뿐만 아니라 금산세계엑스포 개최의 자립 운영의 상설조직 필요

- 인삼축제를 주관하는 법인이 설립될 경우 약 5년 주기로 정기 개최하고 있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주관할 수 있는 엑스포 조직으로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는 민간상설조직을 구성해야함

⑤ 축제의 연속적 운영으로 전문성 확보와 행정업무 능률 제고

■ 34년의 역사를 노하우로 하는 축제운영의 전문성 확보

- 2014년까지 제34회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한 경험과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조직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항시 축제업무를 담당하여 축제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함

■ 공공주도형 축제 운영인력 참여로 인한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

- 그 동안 금산인삼축제는 공공주도형으로 축제준비와 운영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행정업무에 공백이 우려되었으나 전문조직에서 운영할 경우 행정인력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⑥ 군민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자율참여시스템 구축

■ 법인조직을 통한 민간과 단체, 유관기관 등 공동협력체계 구축

- 지금까지는 공공주도형의 축제 운영형태로 민간과 단체, 유관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민간조직을 통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유기적인 자율참여 시스템을 구축

■ 민간중심의 자율운영으로 군민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참여 촉진 가능

- 공공에서의 축제 운영에서도 군민과 문화예술단체의 참여가 양호하게 이루어졌지만 민간중심의 자율운영으로 이루어질 경우 동기부여와 상호 협력으로 축제 참여와 운영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음.

④ 지역상인의 법인참여 운영 확대방안

① 지역상인을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업참여 유도

■ 인삼진흥재단 회원제 모집 및 운영

- 군민과 지역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상인들을 법인 회원으로 모집하여 축제운영과 이벤트, 기타 인삼산업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토록 함

■ 지역상인 주관 소규모 이벤트 사업 실시

- 특히, 지역상인들이 사업군별로 인삼축제시 소규모 이벤트나 행사 개최, 평소의 거리축제나 공연 등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참여 유도

② 인삼축제의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 인력풀 구성·운영

■ 인삼축제 운영 민간단체와 지원인력 상시 구성 및 관리

- 법인에서 축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단체와 지원인력을 상시에 인력풀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특히, 지역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

■ 자원봉사자 인터넷 등록제 실시(재단 홈페이지)

- 인삼축제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고, 인삼축제와 관련 이벤트와 행사시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자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

③ 인삼 홍보마케팅 및 포럼사업 추진

■ ‘금산 蔘과 삶 이야기’ 소식지 제작·배포(초기 계간→월간)

- 법인의 운영과 활동, 특히 인삼축제 및 인삼산업의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금산 蔘과 삶 이야기’를 소식지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지역상인들의 참여를 활성화

■ ‘금산인삼약초 포럼’ 구성 및 운영

- 특히, 금산인삼약초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동향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을 하면서 지역 인삼약초인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금산인삼약초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

④ 금산인삼축제 ‘인삼인의 화합 행사’ 정례화

■ ‘금산인삼약초포럼’ 행사 정기 개최

- 매년 개최되는 금산인삼축제시 향후에는 ‘금산인삼약초 포럼’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금산 인삼약초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행사로 개최

■ 인삼축제 ‘인삼인의 밤’ 행사 개최

- ‘금산인삼약초 포럼’ 개최 후 인삼약초인들의 교류를 위하여 인삼인의 밤을 개최하여 전통예술공연과 화합행사를 개최